

사회

대학가 北 사태에 차분... 관망...

김일성 사망 전남대 분향소 설치때완 대조적

6·15공동위 "정부 자극하는 조의 표명 안할 것"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광주·전남 지역 대학가, 시민단체, 시민 등은 비교적 차분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하면서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조문단 파견이 추진되고 전남대에는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사회 갈등이 촉발되고 공안정국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조문단 파견을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등 대학가 총학생회가 비운동권으로 구성

된다며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김정일 사망과 관련 '자극적인 행동'을 통한 대결구도보다는 이번 상황 자체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현 정부에 조문단 파견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외에 분향소 설치 등 특별한 조문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20일 광주YMCA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조의를 표명하고 조문단을 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어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일본 정부도 예외를 표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조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측에서는 '외국의 조문단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과 북은 외국이 아닌 '한민족'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운동의 핵심단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13개 지역본부는 공동 명의로 조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남갈등을 우려, 별도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 내부에서 인간적인 예도를 표시하되 현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분향소 설치 등 예도행사는 자제해야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김정일 사망에 대한 지역 대학가의 반응은 '무관심'이라는 단어로 압축

되고 있다. 취업난 등 현실문제로 남북관계 등 이데올로기를 의면하는 대학생들의 사고가 반영된 데다 총학생회가 비운동권들로 구성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정일이 생전에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전해지자 대학생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북한 지도자가 죽었다" "군대 다시 가야 하는 거야"라는 내용을 주고 받으며 화제에 올리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지역대학의 한 관계자는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엔 학생들이 이념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는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고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해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고 징역 15년 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대법원, 양형 기준 높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2년 새 세 번째 상향 조치가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높였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해 볼 때 가까이 형량이 높다.

연희뉴스



금품 수수 경사 영장 청구

광주지검 강력부(이상억 부장검사)는 20일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광주 관산경찰서 송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경사는 2009년 8월에 북부경찰서 제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600만원 짜리 소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과 31범 출소 석달만에 또 차량털이

○...사기와 절도 등으로 31범의 '화려한' 전과 경력을 지닌 50대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서행.

○...20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지난 5일 영광을 신하리 인근 식당에 주차된 김모(여·29)씨의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상습절도 혐의로 2년 간 복역한 뒤 지난 9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주택가 인근에서 차량 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다 잠복중 인 경찰에 걸림.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드러누온 레미콘 트럭 20일 오후 2시 30분경 담양군 담양읍 무정리 국도변에서 담양으로 가던 경운기를 레미콘 트럭이 추돌, 레미콘 트럭이 전복되면서 주변 교통이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레미콘 운전자 임모(35)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경운기를 몰던 정모(54)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도 5000만원 선행

"저금통 놓고 간다"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 12년째 1억9000만원

성탄절 전후에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0일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따르면 40대로 짐작되는 한 남성이 이날 낮 12시5분께 전화를 걸어와 "동사무소 주변 세탁소 앞에 저금통을 놓고 간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이 현장에 달려가 봤더니 그곳에는 폐지저금통과 현금 봉투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수는 5만원권 지폐 5000만원과 폐지저금통에 담긴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등 모두 5024만 2100원. <사진> 주민센터 측은 성금을 전달한 시점과 방식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지난 11년간 찾아왔던 그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 이후 12년간 한결같이 이어지게 됐다.

그는 성탄절을 전후해서 해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억9700여만원을 기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어린이 사고 수영장 입주 징역형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운 판사는 20일 수영장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 강사 신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 등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었던 점 등

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한 수영장에서 5살 아기가 물에 빠져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격도 없는 신씨 혼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감시탑을 비워둔 채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성인용 풀로 옮겨간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11 DAENEUNG's Best Seller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한한자연구회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금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임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